



I S S U E P A P E R

2018

# 성인발달장애인 인생전환기에 대응해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필요

—  
윤민석 문진영



# CONTENTS

## 01 서울의 발달장애인 지속 증가 ‘정책적 관심 필요’

- 1\_전체 장애인구는 주는데 발달장애인만 증가추세
- 2\_2017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분석

## 02 치료법 없어 평생 보호 필요한 발달장애인

- 1\_대다수 보호자와 거주...단독거주 욕구도 적지 않아
- 2\_40대 이상 과반수가 낮에 외출 않고 집에서 소일
- 3\_소득관리, 20~30대 부모...40대 이후 본인·형제자매

## 03 일상생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필수

- 1\_외출욕구는 있어도 어디 가야 하나 모르고 갈 곳도 없어
- 2\_활동보조인제도 이용률 낮아...제공시간 부족 등이 원인
- 3\_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인지율은 높아도 이용률은 저조
- 4\_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발달장애인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



# 요약

---

## 서울시 발달장애인 40%는 갈 곳 없어 집에서 소일

발달장애는 평생 보호가 필요한 장애유형이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은 가족의 돌봄 부담과 맞닿아 있다. 서울시 성인발달장애인 39.9%는 특별한 사회활동 없이 낮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서비스도 5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서비스 이용자 중 67.1%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발달장애인의 10.1%는 자립을 원하고 있고, 낮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갈 곳 확대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낮 활동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일상생활 계획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 공간으로서 주간보호센터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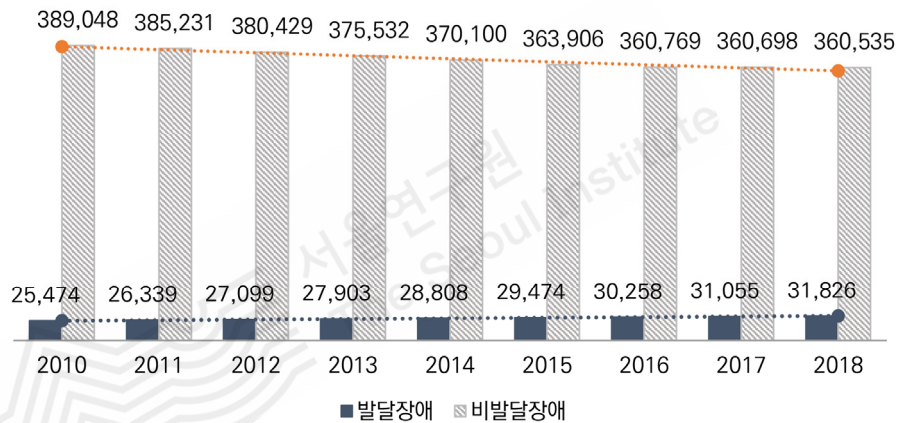
성인발달장애인은 40대에 접어들면서 조기 노화로 서비스 이용과 욕구에 변화가 생긴다. 낮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40대 이상부터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시설 이용률도 낮아져 지역사회와 단절이 우려된다. 또한 40대를 기준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지급여 및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이 부모에서 본인이나 형제자매로 바뀐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이 시기에 가족관계도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고령화와 함께 주 돌봄제공자인 부모의 고령화로 가족 돌봄체계가 취약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40대를 기점으로 변화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생애전환기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01 / 서울의 발달장애인 지속 증가 ‘정책적 관심 필요’

### 1\_전체 장애인구는 주는데 발달장애인만 증가추세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자폐성장애 포함..치료법 없어 평생 보호가 필요**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장애로 발생 원인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어 평생보호가 필요한 장애유형이다. 연도별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인 구수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발달장애인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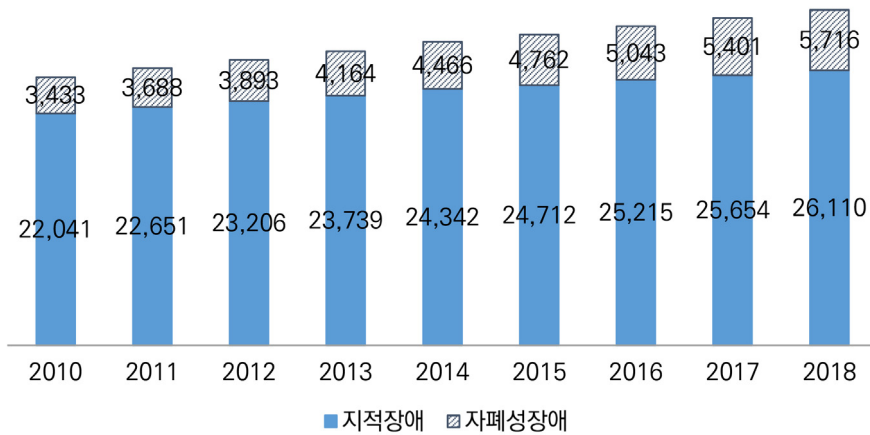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서울시 장애인 현황

주: 2010~2017년 자료: 서울통계 각 연도, 2018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 등록장애인 39만명 중 8.1%가 발달장애인..남성이 65% 차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392,361명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8.1%(서울통계, 2018)에 불과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에 비해 지적장애인은 약 4천 명 늘어나고, 자폐성장애인은 약 2천2백 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을 가정할 경우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도별 서울시  
발달장애인 현황

주: 2010~2017년 자료: 서울통계 각 연도, 2018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 발달장애인 31,826명 중 지적장애는 26,110명, 자폐성장애는 5,716명이다. 지적장애의 61.4%, 자폐성장애의 85.2%가 남성으로 발달장애인에서 남성의 비율이 65%로 높다. 또한 지적장애인에 견줘 자폐성장애인은 연령이 높은 집단의 인구가 매우 적다. 2016년 국립재활원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에서도 장애인 평균연령은 자폐성 장애가 28.2세로 가장 적었고 지적장애가 32.6세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총합계	26,110	5,716
남성	16,036	4,870
여성	10,074	846
0~9	1,429	1,251
10~19	4,544	1,863
20~29	6,862	1,983
30~39	4,979	537
40~49	3,952	75
50~59	2,612	6
60~69	1,274	1
70~79	367	-
80세 이상	91	-

[표 1]  
서울시 발달장애인  
성별, 연령별 현황

### 발달장애인 31.4%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43% “간단한 소통 가능”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31.4%(지적장애인 33.4%, 자폐성장애인 17.3%)는 의사소통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간단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0%, ‘도움을 통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9%, ‘전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였다. 단 조사 과정에서 가족 등의 대리응답이 다수로 가족과 소통이 포함된 응답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발달장애인(n=8,653) 중 70.3%는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비언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비율도 28.7%로 나타났다. 성별, 권역별 경향은 비슷해 보이지만,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언어소통이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비언어 소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언어(말) 소통		언어 외 비언어 소통		의사소통도 구 활용		기타		전체	
		N	%	N	%	N	%	N	%	N	%
성별	남	3,851	70.0	1,599	29.0	41	0.7	14	0.3	5,505	100.0
	여	2,230	70.8	885	28.1	22	0.7	11	0.3	3,148	100.0
권역별	도심권	296	71.2	118	28.4	2	0.5	-	0.0	416	100.0
	동남권	1,147	69.4	494	29.9	8	0.5	4	0.2	1,653	100.0
	동북권	2,069	69.9	864	29.2	18	0.6	8	0.3	2,959	100.0
	서남권	1,813	70.6	717	27.9	27	1.1	10	0.4	2,567	100.0
	서북권	756	71.5	291	27.5	8	0.8	3	0.3	1,058	100.0
연령	20대	2,173	65.4	1,115	33.6	27	0.8	7	0.2	3,322	100.0
	30대	1,407	70.2	573	28.6	13	0.6	10	0.5	2,003	100.0
	40대	1,174	74.8	382	24.3	11	0.7	3	0.2	1,570	100.0
	50대	761	76.0	230	23.0	7	0.7	3	0.3	1,001	100.0
	60대 이상	566	74.8	184	24.3	5	0.7	2	0.3	757	100.0
장애 유형	지적장애	5,302	72.0	1,994	27.1	52	0.7	16	0.2	7,364	100.0
	자폐성장애	760	60.4	479	38.0	11	0.9	9	0.7	1,259	100.0
	기타	19	63.3	11	36.7	-	0.0	-	0.0	30	100.0
전체		6,081	70.3	2,484	28.7	63	0.7	25	0.3	8,653	100.0

**[표 2]**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 특성별 의사소통 정도

## 2\_2017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분석

### 서울시,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시행 중

서울시는 2016년 발달장애인의 교육, 직업, 복지 등 권리보호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차원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중증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욕구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중증장애인 전수조사를 추진하였다. 중증장애 유형별로 조사가 계획되어 2017년에 가장 먼저 발달장애인 대상의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수행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의 분야별 분석 결과로, 서울연구원은 전수조사의 설문지 개발이나 조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만 수행하였음을 밝혀둔다.

###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15,297명 대상 복지욕구, 인적사항 등 조사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준일은 2017년 9월 1일이다. 먼저 8월 21일~25일에 1개 동을 시범 조사하였고, 방문조사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가 발달장애인 19,951명 중, 방문 전 사전조사지 응답완료 사례 16,017명 중에서 18세 이상의 주장애 유형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이고, 또는 주장애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아니지만 중복장애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 15,297명의 사례이다. 자치구별로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당사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거주지 방문 전·후 단계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 방문 전 조사는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인적사항, 서비스 지원 현황 등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방문조사는 개인 특성, 일반 생활 실태 및 복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개인특성 및 복지욕구, 인적사항(장애유형, 장애등급, 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중복장애 여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보조기기 활용 여부 등), 생활실태(복지서비스, 보건의료·건강, 지원,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문화·여가활동, 주거 등)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문항별로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는 자치구별로 분석한 경우도 있지만, 보고서 지면 사정에 따라 성별·권역별·연령대·장애유형·장애등급으로 분석한 경우도 있다. 일부 문항은 전체 응답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조사대상과 조사과정 상의 한계로 판단되어 그대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문항별 응답자 수는 본문과 표에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 문항은 보고서 분량의 제한 때문에 결과를 표로 제시하지 않고, 본문에 관련 내용만 서술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 02 / 치료법 없어 평생 보호 필요한 발달장애인

### 1\_대다수 보호자와 거주...단독거주 욕구도 적지 않아

#### 91.7% “가족과 함께 생활”...1.6%만 “일반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

응답자의 1.6%만 일반주택에서 독립적으로 혼자 생활하며 91.7%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 ‘병원(병원, 재활병원, 요양원 등)’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고시원’에 주로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5%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기타 응답으로는 ‘종교기관’이 22명(0.1%), ‘쪽방’이 26명(0.2%)이고 그 밖에 기숙사, 지인의 집, 기타 장애인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 10% “독립·자립해 일반주택에 살고 싶어”...주거지원 욕구 증대 예상

발달장애인의 78.6%는 ‘가족/친인척의 일반주택’에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10명 중 1명은 ‘독립/자립하여 일반주택’에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10.1%) 단기보호시설,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의 ‘거주시설’에 살고 싶다는 응답은 9.1%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결과적으로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대다수이지만, 장애정도가 경미하거나 자립이 가능한 일부의 성인발달장애인은 단독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주거지원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단독거주		일반주택		거주시설		병원		고시원		기타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전체	237	1.6	13,810	91.7	522	3.5	158	1.0	72	0.5	253	1.7	15,052	100.0
강남구	10	1.3	736	92.0	36	4.5	4	0.5	3	0.4	11	1.4	800	100.0
강동구	9	1.2	683	94.3	16	2.2	5	0.7	3	0.4	8	1.1	724	100.0
강북구	13	1.9	629	90.2	22	3.2	9	1.3	5	0.7	19	2.7	697	100.0
강서구	14	1.3	1004	90.3	63	5.7	13	1.2	8	0.7	10	0.9	1112	100.0
관악구	16	2.0	728	89.0	22	2.7	13	1.6	8	1.0	31	3.8	818	100.0
광진구	11	3.1	308	86.3	23	6.4	4	1.1	3	0.8	8	2.2	357	100.0
구로구	8	1.7	428	90.1	19	4.0	5	1.1	0	-	15	3.2	475	100.0
금천구	13	3.3	343	87.7	22	5.6	6	1.5	0	-	7	1.8	391	100.0
노원구	15	1.2	1180	95.1	23	1.9	18	1.5	1	0.1	4	0.3	1241	100.0
도봉구	12	2.0	558	94.1	14	2.4	4	0.7	1	0.2	4	0.7	593	100.0
동대문구	10	2.0	459	92.7	7	1.4	11	2.2	1	0.2	7	1.4	495	100.0
동작구	3	0.6	454	94.6	14	2.9	4	0.8	1	0.2	4	0.8	480	100.0
마포구	7	1.3	484	89.0	28	5.1	9	1.7	6	1.1	10	1.8	544	100.0
서대문구	6	1.3	407	89.5	28	6.2	7	1.5	1	0.2	6	1.3	455	100.0
서초구	5	1.4	327	90.3	19	5.2	4	1.1	0	-	7	1.9	362	100.0
성동구	4	0.8	477	95.6	8	1.6	3	0.6	2	0.4	5	1.0	499	100.0
성북구	7	1.3	497	93.1	17	3.2	4	0.7	0	-	9	1.7	534	100.0
송파구	5	0.6	767	93.9	21	2.6	5	0.6	5	0.6	14	1.7	817	100.0
양천구	18	3.2	491	87.1	41	7.3	7	1.2	2	0.4	5	0.9	564	100.0
영등포구	11	2.2	444	86.9	27	5.3	4	0.8	8	1.6	17	3.3	511	100.0
용산구	14	4.3	284	86.9	16	4.9	1	0.3	3	0.9	9	2.8	327	100.0
은평구	14	1.5	862	94.6	14	1.5	6	0.7	4	0.4	11	1.2	911	100.0
종로구	3	1.3	206	89.2	6	2.6	2	0.9	2	0.9	12	5.2	231	100.0
중구	1	0.4	224	88.2	10	3.9	3	1.2	1	0.4	15	5.9	254	100.0
중랑구	8	0.9	830	96.5	6	0.7	7	0.8	4	0.5	5	0.6	860	100.0

**[표 3]**  
자치구별 서울시 발달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곳

구분	가족/친인척의 일반주택		독립/자립하여 일반주택		거주시설		기타		전체	
	N	%	N	%	N	%	N	%	N	%
남	7,079	77.4	971	10.6	901	9.9	189	2.1	9,140	100.0
여	4,378	80.6	505	9.3	431	7.9	118	2.2	5,432	100.0
전체	11,457	78.6	1,476	10.1	1,332	9.1	308	2.1	14,572	100.0

**[표 4]**  
응답자 성별로 선호하는 주거생활 형태

## 2\_40대 이상 과반수가 낮에 외출 않고 집에서 소일

### 낮에 주로 시간보내는 장소는 집, 직장, 지역 내 복지관 등의 순서

발달장애인의 39.9%는 낮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21.8%, 지역 내 복지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9.9%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도 5.5%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구분	집에서 지냄		지역 내 복지기관 이용		직장		교육기관		기타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성별	남	3,281	36.2	1,796	19.8	2,201	24.3	545	6.0	1,244	13.7	9,067	100.0
	여	2,495	46.2	1,083	20.1	960	17.8	257	4.8	606	11.2	5,401	100.0
권역별	도심권	275	37.0	143	19.2	170	22.9	36	4.8	119	16.0	743	100.0
	동남권	877	34.2	632	24.6	606	23.6	209	8.1	243	9.5	2,567	100.0
	동북권	2,197	43.2	966	19.0	972	19.1	272	5.4	677	13.3	5,084	100.0
	서남권	1,747	40.8	765	17.9	970	22.7	208	4.9	591	13.8	4,281	100.0
	서북권	680	37.9	373	20.8	443	24.7	77	4.3	220	12.3	1,793	100.0
연령	20대	1,373	25.3	1,438	26.5	1,386	25.5	773	14.2	460	8.5	5,430	100.0
	30대	1,227	35.7	805	23.4	1,030	30.0	18	0.5	358	10.4	3,438	100.0
	40대	1,355	51.6	397	15.1	495	18.8	6	0.2	375	14.3	2,628	100.0
	50대	1,030	60.2	135	7.9	191	11.2	4	0.2	351	20.5	1,711	100.0
	60대 이상	791	62.7	104	8.2	59	4.7	1	0.1	306	24.3	1,261	100.0
장애유형	지적장애	5,376	42.5	2,247	17.8	2,764	21.9	525	4.2	1,732	13.7	12,644	100.0
	자폐성장애	376	21.2	622	35.1	392	22.1	273	15.4	110	6.2	1,773	100.0
	기타	24	47.1	10	19.6	5	9.8	4	7.8	8	15.7	51	100.0
전체	5,776	39.9	2,879	19.9	3,161	21.8	802	5.5	1,850	12.8	14,468	100.0	

[표 5] 응답자 특성별로 낮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

### 생애전환기에 접어든 30~40대 위한 주간보호시설 추가 설치 필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30~40대는 생애전환기에 해당한다. 비장애인과 달리 이 시기부터 조기노화가 진행되면서 보호작업장이나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 어려워져 지역사회와 단절될 확률도 커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4,524명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 낮에 집에서 지내는 발달장애인은 평균 39.9%인데, 20대(25.3%), 30대(35.7%), 40대(51.6%), 50대(60.2%), 60대 이상(62.7%)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기관은 대부분 20~30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되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전환기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용욕구는 많지만, 시설이 적어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주간보호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이번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4,524명의 발달장애인의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 3\_소득관리, 20~30대 부모...40대 이후 본인·형제자매

### 발달장애인의 소득 관리자는 63.5%가 “부모”, 18.8%는 “본인”

발달장애인의 복지급여 및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은 ‘부모’라는 응답이 63.5%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라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30대까지는 부모가 관리해준다는 비율이 높지만, 40대 이후부터 본인이나 형제자매가 관리하고 있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6] 참조). 이러한 결과는 생애전환기에 가족관계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고연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구분	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20대	627	12.1	4,175	80.7	81	1.6	138	2.7
30대	579	17.2	2,393	71.2	135	4.0	78	2.3
40대	572	22.5	1,468	57.8	230	9.1	65	2.6
50대	472	28.2	603	36.0	333	19.9	49	2.9
60대 이상	377	30.7	245	19.9	255	20.7	66	5.4
전체	2,627	18.8	8,884	63.5	1,034	7.4	396	2.8

**[표 6]**  
연령별 응답자의  
복지급여 및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

구분	복지기관 종사자		기타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20대	70	1.4	85	1.6	5,176	100.0
30대	74	2.2	104	3.1	3,363	100.0
40대	51	2.0	155	6.1	2,541	100.0
50대	39	2.3	180	10.7	1,676	100.0
60대 이상	23	1.9	264	21.5	1,230	100.0
전체	257	1.8	788	5.6	13,986	100.0

**[표 6 계속]**  
연령별 응답자의  
복지급여 및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

**성인발달장애인이 희망하는 지원은 소득, 의료, 고용, 주거보장 순**

한편 성인발달장애인은 서울시 발달장애인을 위해 ‘소득보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23.4%), 그다음은 ‘의료보장’ 16.5%, ‘고용보장’ 12.7%, ‘주거보장’ 12.4%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내용	빈도	비율(%)
소득보장	9,196	23.4
의료보장	6,497	16.5
고용보장	4,980	12.7
주거보장	4,895	12.4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	2,137	5.4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지원	1,550	3.9
문화여가 체육활동 확대	3,337	8.5
장애인 인식개선	1,986	5.0
장애인 인권보장	1,877	4.8
돌봄 서비스 확대	2,874	7.3
전체(중복응답 허용)	39,329	100.0

**[표 7]**  
서울시 발달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지원

## 03 / 일상생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필수

### 1\_외출욕구는 있어도 어디 가야 하나 모르고 갈 곳도 없어

집에서 시간보내는 이유는 어디 갈지 몰라, 편하게 갈 곳 없어 등의 순

발달장애인의 39.9%는 낮에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19.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지역사회 내 편하게 갈 곳이 없어서(18.8%)',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13.0%)'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갈 곳이 없어서 집에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일할 곳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복지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거나(7.0%)', '복지기관 프로그램 비용이 부담 되어서(3.0%)'라는 응답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표 8] 참조).

구분	복지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복지기관 프로그램 비용이 부담 되어서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지역사회 내 편하게 갈 곳이 없어서		
	N	%	N	%	N	%	N	%	
성별	남	248	7.9	90	2.9	484	15.3	604	19.1
	여	138	5.8	77	3.3	234	9.9	433	18.3
권역별	도심권	11	4.1	5	1.9	39	14.7	62	23.3
	동남권	84	10.0	20	2.4	125	14.8	157	18.6
	동북권	136	6.5	61	2.9	256	12.3	386	18.5
	서남권	119	7.1	60	3.6	215	12.8	301	17.9
	서북권	36	5.6	21	3.3	83	12.9	131	20.3
	전체	386	7.0	167	3.0	718	13.0	1,037	18.8
연령	20대	152	11.5	66	5.0	264	20.0	245	18.5
	30대	107	9.1	36	3.1	201	17.1	230	19.6
	40대	74	5.7	31	2.4	139	10.8	240	18.6
	50대	33	3.4	20	2.0	76	7.7	180	18.3
	60대 이상	20	2.7	14	1.9	38	5.0	142	18.9
장애 유형	지적장애	323	6.3	149	2.9	659	12.8	956	18.6
	자폐성장애	61	16.8	18	5.0	57	15.7	78	21.5
	기타	2	8.3	-	0.0	2	8.3	3	12.5
전체	386	7.0	167	3.0	718	13.0	1,037	18.8	

[표 8] 응답자 특성별로 낮에 집에서 지내는 이유

구분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기타		전체	
		N	%	N	%	N	%
성별	남	605	19.2	1,124	35.6	3,155	100.0
	여	457	19.3	1,029	43.5	2,368	100.0
권역별	도심권	50	18.8	99	37.2	266	100.0
	동남권	161	19.1	295	35.0	842	100.0
	동북권	421	20.2	827	39.6	2,087	100.0
	서남권	327	19.4	661	39.3	1,683	100.0
	서북권	103	16.0	271	42.0	645	100.0
연령	20대	194	14.7	402	30.4	1,323	100.0
	30대	192	16.4	408	34.8	1,174	100.0
	40대	277	21.5	527	40.9	1,288	100.0
	50대	241	24.5	435	44.2	985	100.0
	60대 이상	158	21.0	381	50.6	753	100.0
장애 유형	지적장애	1,020	19.9	2,029	39.5	5,136	100.0
	자폐성장애	40	11.0	109	30.0	363	100.0
	기타	2	8.3	15	62.5	24	100.0
전체		1,062	19.2	2,153	39.0	5,523	100.0

**[표 8 계속]**  
응답자 특성별로  
낮에 집에서  
지내는 이유

낮에 집에서 지내는 이유 중 기타응답이 3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n=2,153). 기타 응답자의 34.3%는 '고령/건강상의 문제/장애특성/거동불편 때문'에 낮에 집에서 보낸다고 하였다. '대인기피/사회부적응/본인 거부'가 26.7%, '개인 사정/개인생활을 하기 위해/집이 좋아서'가 17.5%, '이동 불편/단독외출 불가/외출 불안 때문'이 10.0%, '가사/가족돌봄'이 4.6%, '야간 근무/재택근무'가 1.7%, '가족의 판단/가족이 돌볼 수 있어서'가 1.6%,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1.3%로 나타났다. 갈 곳이 없어 집에서 지내는 이유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신체적, 물리적 장애요인에 따른 외출 제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보장 위해 주간보호센터 역할 재정립할 필요

성인발달장애인의 24.4%는 낮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갈 곳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20.4%, ‘낮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이 19.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가 18.0%,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가 10.7%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권역별·지역별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별로 지원내용에 욕구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20~40대까지는 일자리확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확대, 평생교육센터 확대를 희망하는 응답비율이 높았지만, 40대 이상은 낮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응답률이 높았다.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돌봄 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또 다른 고립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점공간인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 3인으로 12~15명을 돌보는 현 체제로는 다양한 사업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이 추가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구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낮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지역사회 내 갈 곳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N	%	N	%	N	%	N	%	
성별	남	2,037	10.3	3,795	19.2	4,777	24.1	3,616	18.3
	여	1,309	11.5	2,345	20.7	2,827	24.9	2,001	17.6
권역별	도심권	143	8.9	304	18.8	414	25.7	296	18.3
	동남권	660	11.6	952	16.8	1,329	23.4	1,164	20.5
	동북권	1,155	10.5	2,316	21.0	2,733	24.8	1,928	17.5
	서남권	954	10.8	1,753	19.8	2,169	24.5	1,522	17.2
	서북권	434	10.9	815	20.4	959	24.0	707	17.7
연령	20대	1,452	11.5	2,063	16.4	2,783	22.1	2,635	20.9
	30대	790	10.6	1,452	19.4	1,834	24.5	1,375	18.4
	40대	532	9.9	1,199	22.3	1,415	26.3	841	15.6
	50대	309	9.2	828	24.7	924	27.6	480	14.3
	60대 이상	263	11.3	598	25.6	648	27.7	286	12.2
장애 유형	지적장애	2,797	10.4	5,474	20.4	6,590	24.6	4,582	17.1
	자폐성장애	538	12.5	648	15.1	987	23.0	1,018	23.7
	기타	11	11.6	18	18.9	27	28.4	17	17.9
전체	3,346	10.7	6,140	19.7	7,604	24.4	5,617	18.0	

**[표 9]**  
응답자 특성별로 낮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전공과 확대		기타		전체	
		N	%	N	%	N	%	N	%
성별	남	4,263	21.5	483	2.4	842	4.2	19,813	100.0
	여	2,090	18.4	244	2.2	532	4.7	11,348	100.0
권역 별	도심권	357	22.1	38	2.4	62	3.8	1,614	100.0
	동남권	1,202	21.2	164	2.9	197	3.5	5,668	100.0
	동북권	2,168	19.7	262	2.4	457	4.1	11,019	100.0
	서남권	1,811	20.4	183	2.1	475	5.4	8,867	100.0
	서북권	815	20.4	80	2.0	183	4.6	3,993	100.0
연령	20대	2,845	22.6	471	3.7	353	2.8	12,602	100.0
	30대	1,591	21.3	127	1.7	318	4.2	7,487	100.0
	40대	1,017	18.9	60	1.1	323	6.0	5,387	100.0
	50대	568	17.0	39	1.2	201	6.0	3,349	100.0
	60대 이상	332	14.2	30	1.3	179	7.7	2,336	100.0
장애 유형	지적장애	5,472	20.4	574	2.1	1,280	4.8	26,769	100.0
	자폐성장애	865	20.1	152	3.5	89	2.1	4,297	100.0
	기타	16	16.8	1	1.1	5	5.3	95	100.0
전체		6,353	20.4	727	2.3	1,374	4.4	31,161	100.0

[표 9 계속]  
응답자 특성별로  
낮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 2\_활동보조인제도 이용률 낮아...제공시간 부족 등이 원인

### 성인발달장애인의 20%가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해 '활용도 낮은 편'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장애인이다. 장애등급에 따라 이용시간의 상한선이 있으며 1등급은 최대 11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존재하지만 수급자는 전액 면제, 차상위 계층은 2만 원 정액제로 이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 중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22.2%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성별	남	2,096	22.8	7,099	77.2	9,195	100.0
	여	1,147	21.1	4,282	78.9	5,429	100.0
권역 별	도심권	126	16.3	649	83.7	775	100.0
	동남권	801	30.4	1,834	69.6	2,635	100.0
	동북권	1,018	19.8	4,111	80.2	5,129	100.0
	서남권	898	21.2	3,347	78.8	4,245	100.0
	서북권	400	21.7	1,440	78.3	1,840	100.0
연령	20대	1,987	35.9	3,554	64.1	5,541	100.0
	30대	754	21.7	2,727	78.3	3,481	100.0
	40대	285	10.8	2,348	89.2	2,633	100.0
	50대	143	8.3	1,579	91.7	1,722	100.0
	60대 이상	74	5.9	1,173	94.1	1,247	100.0
장애 유형	지적장애	2,347	18.4	10,401	81.6	12,748	100.0
	자폐성장애	880	48.2	945	51.8	1,825	100.0
	기타	16	31.4	35	68.6	51	100.0
전체		3,243	22.2	11,381	77.8	14,624	100.0

[표 10]  
응답자 특성별  
활동지원제도  
이용 여부

### 장애등급 높고 나이 적은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 많아

권역별로는 동북권과 서남권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이용률이 높고, 연령별로는 30대부터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유형으로는 자폐성장애의 활동보조인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이 '95시간 초과 118시간 이하'가 28.5%로 가장 높았으며, '71시간 초과 95시간 이하'는 26.6%, '118시간 초과'는 24.0%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등급이 높으면서 연령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1] 참조).

구분	48시간 이하		48시간 초과 71시간 이하		71시간 초과 95시간 이하		95시간 초과 118시간 이하		118시간 초과		전체		
	N	%	N	%	N	%	N	%	N	%	N	%	
성별	남	245	11.8	171	8.3	563	27.2	597	28.8	495	23.9	2,071	100.0
	여	142	12.5	112	9.9	290	25.5	317	27.9	276	24.3	1,137	100.0
권역 별	도심권	16	13.2	13	10.7	33	27.3	36	29.8	23	19.0	121	100.0
	동남권	51	6.4	57	7.2	211	26.5	227	28.5	250	31.4	796	100.0
	동북권	159	15.8	92	9.1	278	27.6	261	25.9	219	21.7	1,009	100.0
	서남권	119	13.4	91	10.3	232	26.2	259	29.2	185	20.9	886	100.0
	서북권	42	10.6	30	7.6	99	25.0	131	33.1	94	23.7	396	100.0
연령	20대	225	11.5	165	8.4	504	25.7	569	29.0	501	25.5	1,964	100.0
	30대	82	10.9	59	7.8	224	29.8	223	29.7	164	21.8	752	100.0
	40대	40	14.2	23	8.2	69	24.5	88	31.2	62	22.0	282	100.0
	50대	27	19.4	26	18.7	32	23.0	23	16.5	31	22.3	139	100.0
	60대 이상	13	18.3	10	14.1	24	33.8	11	15.5	13	18.3	71	100.0
장애 유형	지적장애	302	13.0	212	9.1	609	26.2	664	28.6	534	23.0	2,321	100.0
	자폐성장애	83	9.5	70	8.0	240	27.5	248	28.4	231	26.5	872	100.0
	기타	2	13.3	1	6.7	4	26.7	2	13.3	6	40.0	15	100.0
장애 등급	1급	194	8.4	97	4.2	594	25.8	737	32.0	679	29.5	2,301	100.0
	2급	152	19.3	157	19.9	228	28.9	168	21.3	84	10.6	789	100.0
	3급	41	34.7	29	24.6	31	26.3	9	7.6	8	6.8	118	100.0
전체		387	12.1	283	8.8	853	26.6	914	28.5	771	24.0	3,208	100.0

**[표 11]**  
응답자 특성별  
활동지원제도  
이용 시간(월)

### 가족 돌봄 덜어주는 차원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시간 늘릴 필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67.1%가 제공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지역별로는 동남권이 70.1%로 가장 높았고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부족하다는 비율이 감소하였다([표 12] 참조). 1일 기준으로 응답률은 2시간 부족은 27.9%, 3시간 부족이 21.9%, 4시간 부족이 20.6%, 6시간 이상 부족은 14.3%, 5시간 부족은 9.2%, 1시간 부족은 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은 각각 18.4%, 48.2%였는데, 서비스의 충분성을 묻는 질문에 지적장애인 65.9%, 자폐성장장애인 71.2%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폐성장장애인이 지적장애인에 비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이 높지만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현재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인정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분	부족하다		충분한 편이다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성별	남	1,325	67.1	651	32.9	1,976	100.0
	여	728	67.1	357	32.9	1,085	100.0
권역별	도심권	69	57.5	51	42.5	120	100.0
	동남권	531	70.1	226	29.9	757	100.0
	동북권	652	67.9	308	32.1	960	100.0
	서남권	546	64.6	299	35.4	845	100.0
	서북권	255	67.3	124	32.7	379	100.0
연령	20대	1,296	69.0	582	31.0	1,878	100.0
	30대	464	65.2	248	34.8	712	100.0
	40대	170	63.9	96	36.1	266	100.0
	50대	83	61.0	53	39.0	136	100.0
	60대 이상	40	58.0	29	42.0	69	100.0
장애 유형	지적장애	1,449	65.5	764	34.5	2,213	100.0
	자폐성장장애	593	71.2	240	28.8	833	100.0
	기타	11	73.3	4	26.7	15	100.0
전체	2,053	67.1	1,008	32.9	3,061	100.0	

**[표 12]**  
(활동지원제도  
이용자만 응답)  
응답자 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의견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개인별 일상계획 수립 지원이 중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의 3명 중 1명은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아서’라고 응답했고(37.4%) ‘서비스 내용 불만족(활동보조인과 함께 할 활동이 없어서/ 원하는 활동에 이용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비율이 16.6%로 분석되었다([표 13] 참조).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대부터 증가하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비스 내용에 불만족해서(활동보조인과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서/ 원하는 활동에 이용할 수 없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6.6%이고 낮에 집에 머물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낮에 할 수 있는 활동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내에서 일주일에 2일 일하고 3일은 욕구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주간보호와 직업재활을 혼합한 형태의 전달체계를 개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인지도와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월간활동 계획 및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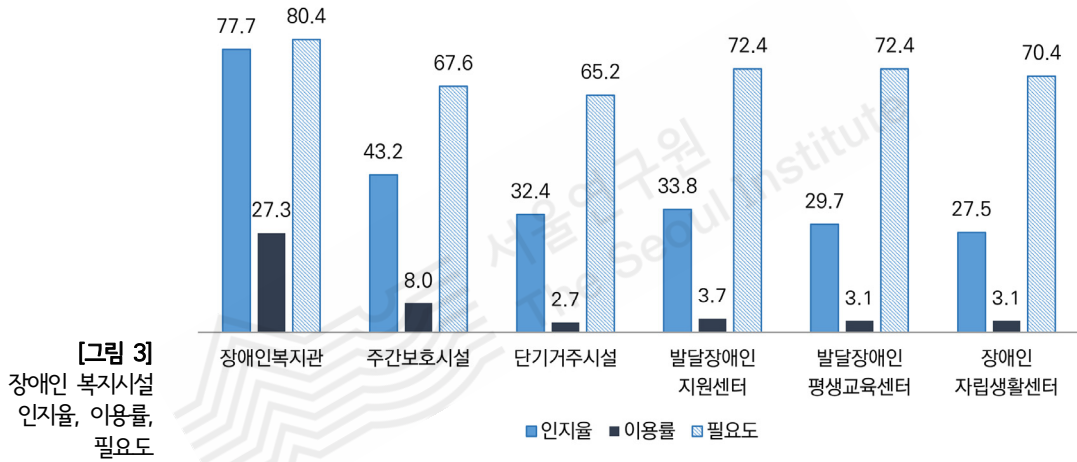
구분	가족/친지 도움 선호		활동보조인 구할 수 없어서		본인 부담금 부담		서비스 제공 기관 불만족		서비스 내용 불만족		기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20대	957	33.0	118	4.1	163	5.6	86	3.0	571	19.7	1,005	34.7	2,900	100.0
30대	820	36.2	55	2.4	119	5.2	54	2.4	402	17.7	818	36.1	2,268	100.0
40대	797	41.7	47	2.5	75	3.9	31	1.6	276	14.4	687	35.9	1,913	100.0
50대	514	40.3	25	2.0	56	4.4	21	1.6	167	13.1	494	38.7	1,277	100.0
60대 이상	399	41.6	13	1.4	37	3.9	16	1.7	131	13.7	363	37.9	959	100.0
전체	3,487	37.4	258	2.8	450	4.8	208	2.2	1,547	16.6	3,367	36.1	9,317	100.0

**[표 13]**  
응답자 연령별  
활동보조서비스  
미이용 이유  
(중복응답)

### 3\_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인지율은 높아도 이용률은 저조

#### 장애인복지관 이용률 27%...나머지 관련 시설 이용률은 10%에 못 미쳐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의 인지율·이용률·필요도에서 대부분의 기관에 대한 인지율과 필요도는 높지만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률은 27.3%였지만,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이용률은 10% 미만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인복지관은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시설임에도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이유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주간보호시설은 소규모인 관계로 시설이용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장애인 복지시설 인지율, 이용률, 필요도

#### 성인발달장애인의 49%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없어”...나이 들수록 외면

성인발달장애인이 지난 1년간 많이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은 ‘문화 예술프로그램’이 15.2%, ‘직업능력향상 교육’이 13.0%, ‘체육프로그램’이 1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발달장애인의 49.1%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참여 경험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인의 미참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장애유형과 연령 특성에 따른 행동패턴의 전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4] 참조).

구분		기초문자, 신변처리 등		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성별	남	456	4.1	1,528	13.7	1,647	14.7	1,527	13.6
	여	283	4.3	787	12.0	1,047	16.0	732	11.2
권역별	도심권	41	4.6	114	12.7	140	15.5	103	11.4
	동남권	142	4.4	469	14.4	547	16.8	549	16.9
	동북권	239	3.9	734	12.0	822	13.5	690	11.3
	서남권	212	4.1	689	13.2	805	15.5	619	11.9
	서북권	105	4.6	309	13.5	380	16.6	298	13.0
연령	20대	355	4.8	1,467	19.9	1,391	18.9	1,300	17.6
	30대	189	4.5	518	12.2	691	16.3	547	12.9
	40대	116	3.9	224	7.5	367	12.3	253	8.5
	50대	55	3.0	70	3.8	165	9.0	103	5.6
	60대 이상	24	1.8	36	2.7	80	6.1	56	4.3
장애 유형	지적장애	611	4.1	1,850	12.3	2,122	14.1	1,656	11.0
	자폐성장애	124	4.7	459	17.6	564	21.6	596	22.8
	기타	4	6.8	6	10.2	8	13.6	7	11.9
전체		739	4.2	2,315	13.0	2,694	15.2	2,259	12.7

**[표 14]**  
 응답자 특성별로  
 지난 1년간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  
 (중복응답)

구분		기타 프로그램		참여한 경험이 없음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성별	남	616	5.5	5,417	48.4	11,191	100.0
	여	410	6.3	3,299	50.3	6,558	100.0
권역별	도심권	48	5.3	455	50.5	901	100.0
	동남권	190	5.8	1,361	41.8	3,258	100.0
	동북권	305	5.0	3,306	54.2	6,096	100.0
	서남권	342	6.6	2,543	48.8	5,210	100.0
	서북권	141	6.2	1,051	46.0	2,284	100.0
연령	20대	511	6.9	2,349	31.9	7,373	100.0
	30대	256	6.0	2,040	48.1	4,241	100.0
	40대	155	5.2	1,864	62.6	2,979	100.0
	50대	62	3.4	1,384	75.3	1,839	100.0
	60대 이상	42	3.2	1,079	81.9	1,317	100.0
장애 유형	지적장애	838	5.6	8,000	53.1	15,077	100.0
	자폐성장애	185	7.1	685	26.2	2,613	100.0
	기타	3	5.1	31	52.5	59	100.0
전체		1,026	5.8	8,716	49.1	17,749	100.0

**[표 14 계속]**  
 응답자 특성별로  
 지난 1년간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  
 (중복응답)

### 장애인등급제 개편 등 장애인서비스 관련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 바람직

발달장애인은 당사자나 보호자의 욕구가 개별적이고 다양한 측면이 있어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장애인등급제 개편과 커뮤니티케어에서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이 장애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나, 민선 7기 공약집에 명시되어 있는 돌봄SOS 등에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포함 여부에 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 설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 4\_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발달장애인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

성인발달장애인 근무기관은 민간기관·일반회사, 직업재활시설, 공공기관 순 성인발달장애인의 39.4%는 ‘민간기관/일반회사’에서 근무하고 36.7%는 ‘직업재활시설’에서, 11.4%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연령은 30대 이하의 비중이 높았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가 자폐성장애보다 높은 경제활동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지상의 한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또는 급여의 정확한 내용을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경제활동 규모를 확인한 것은 의미있다고 판단된다([표 15] 참조).

구분	공공기관		민간/일반회사		직업재활시설		기타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성별	남	290	11.4	1,072	42.1	862	33.8	324	12.7	2,548	100.0
	여	127	11.4	368	33.1	481	43.3	135	12.2	1,111	100.0
연령	20대	193	12.1	646	40.3	579	36.2	183	11.4	1,601	100.0
	30대	118	10.0	446	37.8	483	40.9	133	11.3	1,180	100.0
	40대	52	8.9	241	41.1	219	37.4	74	12.6	586	100.0
	50대	34	15.7	78	36.1	53	24.5	51	23.6	216	100.0
	60대 이상	20	26.3	29	38.2	9	11.8	18	23.7	76	100.0
장애 유형	지적장애	373	11.7	1,283	40.2	1,133	35.5	399	12.5	3,188	100.0
	자폐성장애	44	9.5	154	33.2	207	44.6	59	12.7	464	100.0
	기타	-	0.0	3	42.9	3	42.9	1	14.3	7	100.0
전체	417	11.4	1,440	39.4	1,343	36.7	459	12.5	3,659	100.0	

**[표 15]**  
(취업자만 응답)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



**직장에서 어려움, 50대 이상은 낮은 수입, 40대 이하는 대인관계·소통문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이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 및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으며(66.3%), 5명 중 1명은 '낮은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2.8%). 이외에도 '출퇴근 불편'이 3.2%, '근무시간이 맞지 않음'이 2.8% 순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낮았다.

40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은 소득이 문제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층일수록 대인관계 및 소통문제가 직장생활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연령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표 16] 참조).

구분		낮은 수입		대인 관계 및 소통문제		출퇴근 불편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 부족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성별	남	571	22.4	1,703	66.8	85	3.3	33	1.3
	여	267	23.7	735	65.3	31	2.8	17	1.5
권역별	도심권	48	25.7	119	63.6	8	4.3	4	2.1
	동남권	104	15.0	522	75.2	26	3.7	6	0.9
	동북권	296	25.3	771	65.8	30	2.6	19	1.6
	서남권	277	24.9	684	61.4	39	3.5	11	1.0
	서북권	113	22.2	342	67.1	13	2.5	10	2.0
연령	20대	291	18.2	1,201	75.1	13	0.8	22	1.4
	30대	270	22.7	818	68.6	24	2.0	16	1.3
	40대	160	27.3	347	59.2	34	5.8	4	0.7
	50대	81	37.2	65	29.8	33	15.1	6	2.8
	60대 이상	36	44.4	7	8.6	12	14.8	2	2.5
장애 유형	지적장애	774	24.2	2,043	63.8	114	3.6	48	1.5
	자폐성장애	63	13.5	390	83.3	2	0.4	2	0.4
	기타	1	14.3	5	71.4	-	0.0	-	0.0
전체		838	22.8	2,438	66.3	116	3.2	50	1.4

**[표 16]**  
 (취업자만 응답)  
 현재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중복응답)

**[표 16 계속]**  
(취업자만 응답)  
현재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중복응답)

구분		근무시간이 맞지 않음		기타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성별	남	65	2.5	94	3.7	2,551	100.0
	여	38	3.4	38	3.4	1,126	100.0
권역 별	도심권	3	1.6	5	2.7	187	100.0
	동남권	18	2.6	18	2.6	694	100.0
	동북권	13	1.1	43	3.7	1,172	100.0
	서남권	61	5.5	42	3.8	1,114	100.0
	서북권	8	1.6	24	4.7	510	100.0
연령	20대	32	2.0	41	2.6	1,600	100.0
	30대	36	3.0	28	2.3	1,192	100.0
	40대	18	3.1	23	3.9	586	100.0
	50대	12	5.5	21	9.6	218	100.0
	60대 이상	5	6.2	19	23.5	81	100.0
장애 유형	지적장애	100	3.1	123	3.8	3,202	100.0
	자폐성장애	2	0.4	9	1.9	468	100.0
	기타	1	14.3	-	0.0	7	100.0
전체		103	2.8	132	3.6	3,677	100.0

**발달장애인 채용 시 애로사항 전담하는 순회파견 지원인력 배치 고려해야**

이번 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의 소득을 조사하였지만, 응답의 대부분이 신뢰성이 없어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응답자의 소득만을 분석해 보았을 때, 비장애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근로를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정의하면 비장애인 대비 몇 %의 생산성이 있는지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어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직업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어려움(66.3%)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발달장애인 채용 시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순회파견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서울연 2018-OR-13

성인발달장애인 인생전환기에 대응해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필요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9월 10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321-1 93330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